

게오르크 바젤리츠

손끝에서(Per Mano)

2026년 9월 1일—11월 14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2층



게오르크 바젤리츠, 그림자 2(Schatten 2), 2020.
캔버스에 유채. 233 x 145 cm (91.73 x 57.09 in).
© Georg Baselitz 2026. Photo: Jochen Littkemann.

타데우스 로팍 서울은 지난 4월 작고한 현대미술계의 거장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의 생애 후반기 10년을 집약적으로 조명하는 개인전 《손끝에서 (Per Mano)》를 개최한다. 생전 작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구상한 본 전시에서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대표하는 모노타이프 회화 연작 〈그림자 (Schatten)〉(2020)와 〈어둠과 황금빛(Darkness Goldness)〉(2019)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특히 〈그림자〉연작은 이스탄불

사킵 사반치 미술관(Sakıp Sabancı Museum, Istanbul, 2024)과 빌바오 미술관(Museo de Bellas Artes de Bilbao, 2025) 전시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다. 두 연작 모두 큐레이터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가 기획한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기념비적인 〈아비뇽(Avignon)〉연작을 기점으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했던 작가의 궤적을 보여준다.

〈그림자(Schatten)〉 연작은 티치아노(Tiziano Vecellio)의 〈대주교 필리포 아르킨토(Archbishop Filippo Archinto)〉(c. 1558,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티치아노의 원작은 묘사된 인물을 베일로 과감하게 가린 화면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바젤리츠는 그 인물 뒤편으로 드리운 곡선형 그림자에 매료되었다. 바젤리츠는 각 캔버스 좌측에 이 그림자를 뒤집어 배치하며 반복적으로 반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69년 이후 그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하 반전 도상에 대해 큐레이터 파멜라 슈티히트(Pamela Sticht)는 “작가는 이미지에 ‘반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존재론적 전환을 유발하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미술사학자들은 작가의 반전된 화면 구성을 성 베드로의 십자가 형벌(Crucifixion of Saint Peter) 도상에 비유하기도 했으나, 그가 추구했던 것은 형태적 맥락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는 독일 분단 당시 소련이 승인한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과 서구의 현실도피적 사조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던 시기에, 구상과 추상 사이의 엄격한 경계를 과감히 허무는 시도였다.



게오르크 바젤리츠, 그림자 5(Schatten 5), 2020.
캔버스에 유채. 243 x 164 cm (95.67 x 64.57 in).
© Georg Baselitz 2026. Photo: Jochen Littkem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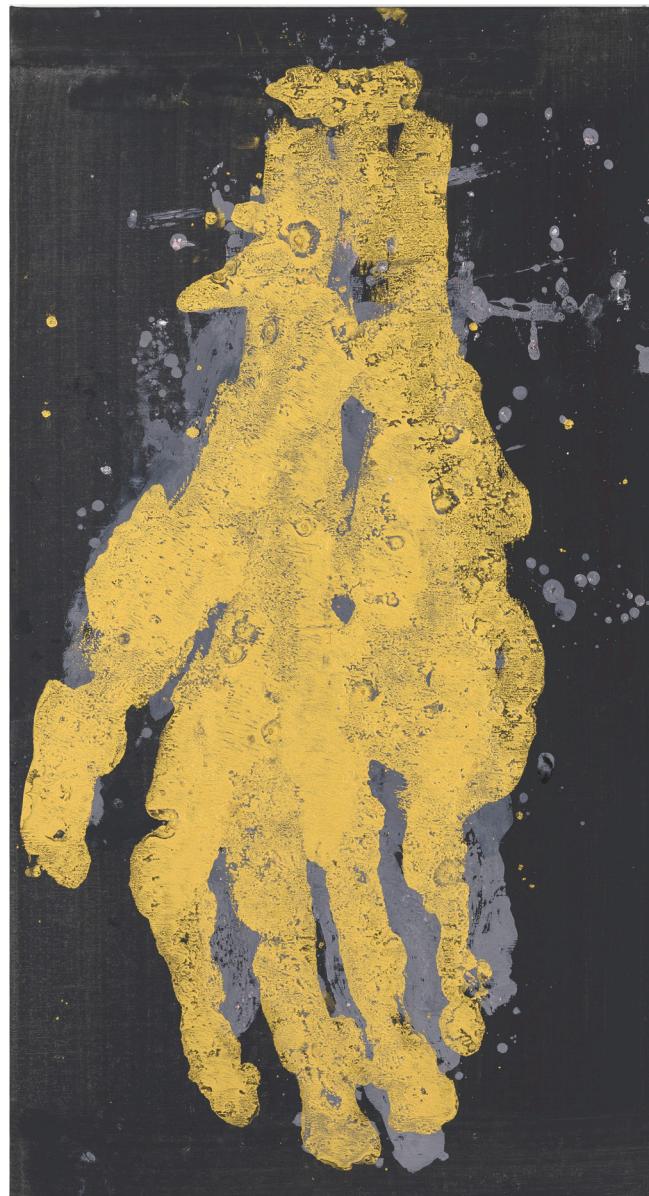


게오르크 바젤리츠, 손끝에서 - 손을 잡고(Per mano - an der Hand), 2019.
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안료. 165 x 89 cm (64.96 x 35.04 in).
© Georg Baselitz 2026. Photo: Jochen Littkemann.

〈그림자〉 연작에서 찾아볼 수 있듯, 화면 중앙에 집중된 작가의 고유한 필치와 특유의 손짓이 자아내는 역동적인 속도감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윌렘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을 연상시키는 유연함, 모노타이프 기법이 지닌 독창적인 조형적 변주, 그리고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작업 방식으로 인한 물감 자국들은 추상화에 대한 작가의 실험적 면모를 방증한다. 고도의 신체적인 작업 과정 속에서 작가는 틀을 짜지 않은 캔버스 천을 바닥에 깔고 그림을 그린 뒤, 그 위에 젯소 칠로 마무리한 최종 캔버스를 겹쳐 놓고 빗자루를 이용해 강하게 압착하여 이미지를 전사한다. 각 작품에서는 화면 속 뒤집힌 두개골의 형상이 각기 다른 선명도로 떠오르는데, 이는 한스 홀바인(Hans Holbein)의 대표작 〈대사들(The Ambassadors)〉(1533,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 소장)에 등장하는 왜곡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떠올리게 한다. 또렷한 윤곽으로

드러나는 두개골의 기하학적 형태는 아프리카 고전 조각, 특히 송예(Songye) 부족의 주술 조각상에 매료되었던 작가의 관심을 반영한다. 1960년대 초작 <판데모니움(Pandämonium)>부터 대형 조각 작품 <끝, 소멸(Zero Ende)>(2013)에 이르기까지 바젤리츠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모티프인 두개골은, 이번 연작에서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작품을 강렬하고도 예지적인 바니타스(vanitas)로 승화시킨다.

함께 전시되는 <어둠과 황금빛> 연작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삶의 유한함과 깊이 맞닿아 있다. 거대한 황금빛 손은 칙흑 같은 배경 속을 유령과 같이 유영하며 숭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는 대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the Elder)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본 작품들은 작가의 초기 연작 <P.D. 발(P.D. Füße)>(1960-63)에서 대담하게 표현한 절단된 사지, 또는 <영웅(Helden)>(1965-66) 연작 속 비대해진 신체적 표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세월의 흔적으로 한층 여려진 듯 하면서도 특유의 과감한 표현력은 잃지 않은 작가의 손을 담아낸다. 미술사학자 호세 마리아 파레뇨(José María Parreño)는 “골관절염으로 인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형된 마디진 손은, 포트리에(Jean Fautrier)의 <인질(Otages)> 연작 속 얼굴들처럼 세월과 노동에 마모된 살점과 같다”고 묘사한다. 모노타이프 전사 기법으로 더욱 극대화된 각각의 도금된 손은, 마치 환영과 같이 아른거리는 느낌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 작가는 “나는 깊은 곳, 그 어딘가에서 떠오르는 환영을 구현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때에는 뼈대만 남은듯 보이며 때론 황금빛 물감이 스미고 번지며 그의 예술 세계 속으로 덧없이 사라지는 듯하다. 큐레이터 베르나르 블리스텐(Bernard Blistène)은 “작가 자신의 작업이 지닌 초월성과 화가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크 바젤리츠, 황동 손잡이(Maniglia ottone), 2019.
캔버스에 유채 그리고 금색 안료. 165 x 89 cm (64.96 x 35.04 in).
© Georg Baselitz 2026. Photo: Jochen Littkemann.



게오르크 바젤리츠, 2024. © Georg Baselitz. Photo: Martin Müller, Berlin.

작가 소개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초기작은 카셀 도큐멘타5 (1972), 7(1982)에서 소개되었으며,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이후, 왕립 예술 학교(Royal Academy of Arts)에서 기획한 《A New Spirit in Painting》(1981)과 《German Art in the Twentieth Century》(1985),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Martin-Gropius-Bau, Berlin)의 《Zeitgeist》(1982) 등 다수의 우수한 기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1995년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에서 첫 회고전을 선보인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과 허쉬혼 미술관(Hirshhorn Museum, Washington, D.C.), 내셔널갤러리(Nationalgalerie, Berlin), 파리 시립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을 순회했다. 또 다른 중요한 회고전으로 2007년 왕립 예술 학교(Royal Academy of Arts, London)의 기획전이 있으며, 2006년과 2007년 뮌헨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 현대미술관(Pinakothek der Moderne, Munich)과 알베르티나 박물관(Albertina, Vienna)에서 처음으로 그의 〈리믹스(Remix)〉 회화 연작이 전시되었다.

바젤리츠의 조각은 파리 시립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 2011-12)에서 열린 회고전에서 전시된 바 있으며, 그의 〈아비뇽(Avignon)〉 연작은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2016년에는 〈영웅(Heldenbilder)〉과 〈새로운 타입(Neue Typen)〉 연작이 슈테델 미술관(Städel Museum, Frankfurt)에 전시되었고, 이 작품들은 이어 스톡홀름 현대미술관(Moderna Museet), 로마 팔라초 델레 엑스포지오니(Palazzo delle Esposizioni), 빌바오 구겐하임(Guggenheim Bilbao)을 순회했다. 2018년 바젤리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개인전이 바이엘러 미술관(Foundation Beyeler, Basel), 허쉬혼 미술관

(Hirshhorn Museum, Washington, D.C.), 프랑스 운터린덴 미술관(Musée Unterlinden, Colmar)에서 열렸다. 2019년 그는 파리 아카데미 데 보자르(Académie des Beaux-Arts)의 회원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으며,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e dell'Accademia, Venice)에서 회고전을 가진 최초의 생존 작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업 근간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2021년龐피두 센터(Centere Pompidou, Paris)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23년에는 바젤리츠의 85세 생일을 기념하여 전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전시가 개최되었다. 그 중 빈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에서 개최한 기념비적인 전시 《Nackte Meister》는 그의 작품을 서양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과 나란히 선보였으며, 서펜타인 갤러리(Serpentine Galleries, London)에서는 그의 조각 작업을 집중 조명하였다. 더 모건 라이브러리(The Morgan Library, New York)에서는 60년에 걸친 드로잉 작품을 조망하는 회고전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 전시는 알베르티나 박물관을 순회했다. 또한, 쿤스텐 올보르 현대 미술관(Kunsten Museum of Modern Art Aalborg)에서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작품과 함께 바젤리츠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이 전시는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 두 예술가의 교류를 선보이는 첫 번째 전시였다. 작가의 개인전은 국립 그래픽 아트 전시관(Staatliche Graphische Sammlung München),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 (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뷔르트 2 박물관(Museum Würth 2, Künzelsau), 사키프 사반치 박물관 (Sakıp Sabancı Museum, Istanbul, 2024), 오슬로 뭉크 미술관(Munchmuseet, Oslo, 2025), 베르겐 미술관(Kode, Bergen, 2025), 빌바오 미술관(Museo de Bellas Artes de Bilbao, 2025) 등 여러 기관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바젤리츠의 개인전은 노베첸토 미술관(Museo Novecento, Florence, 2026년 9월 13일까지), 조르조 치니 재단(Fondazione Giorgio Cini, Venice, 2026년 9월 27일까지), 루페르티눔(Rupertinum, Salzburg, 2026년 10월 4일까지), 잘츠부르크 현대미술관(Museum der Moderne Salzburg, 2026년 10월 18일까지)에서 선보이고 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김혜진
타데우스 로팍 서울
press.seoul@ropac.net
T +82 2 6949 1760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georgbaselitz